

# LG이노텍, 반도체기판 공장 증설 “2030년 패키지솔루션 매출 3조”

### 베트남 하이퐁시와 투자 체결 내달 착공... 내년 5월 준공 예정

### FC-BGA 등 AI 확산에 수요 급증 구미 생산라인 100% 수준 풀가동 지속성장 예상... 증설로 캐파 확대

LG이노텍이 반도체기판 생산기지를 경북 구미에 이어 베트남으로 확대한다. 광학솔루션에 이어 패키지솔루션 사업도 국내외 두 곳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패키지솔루션 매출을 3조원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LG이노텍은 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베트남 하이퐁시와 반도체기판 공장 증설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도타인종 하이퐁 시장 등 현지 관계자와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하이퐁 생산법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장 증설에 들어간다. 오는 7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부지는 축구장 45개 규모인 약 9만8000평(33만㎡)에 달한다. 증설 공장에서는 RF-SiP(무선주파

수 시스템인 패키지), FC-CSP(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FC-BGA(플립칩 불그리드 어레이) 등을 생산한다.

이번 증설로 구미 사업장과 베트남 공장 역할이 구분된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구미 사업장을 반도체기판 신기술 개발과 신모델·고부가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마더 팩토리로, 베트남 공장을 범용 제품 생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설 배경에는 가파른 수요 확대가 있다. RF-SiP는 5G 채용률 증가와 6G 도입으로, FC-CSP는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따른 저전력·고성능 제품 수요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FC-BGA는 AI 서버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리스마크는 FC-BGA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며 PCB 제품군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 병목도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추세에 따라 현재 구미 사업장의 반도체기판 생산라인을 사실상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구미 반도체기판 생산라인 평균 가동률은 80.8%로, 2023년 63.2%, 2024년 75.6%에서 2년 연속 올랐

다. 증권가에서는 최대 비수기인 2분기에 도 기판 라인 100% 수준으로 풀가동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회사는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증설을 통한 캐파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LG이노텍이 베트남 하이퐁을 증설 부지로 선택한 배경으로는 ▲장기간 현지 생산법인 운영에 따른 인프라 구축 용이성 ▲주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 대응력 강화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이 꼽힌다.

국내 투자도 병행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3월 구미시와 올해 말까지 60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투자 협약을 맺으며, 수요 확대에 맞춰 추가 투자도 검토 중이다.

문혁수 사장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갖춘 패키지솔루션 사업은 LG이노텍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생산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패키지솔루션 매출을 3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이익기여도를 광학솔루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쇼핑 멤버십 늘고, 식품 정기구독 활발

### 고물가·경기 불확실성 장기화에 고정비용 계획 소비 경향 강해져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 관리 방식이 눈에 띄게 스마트해지고 있다. 할인 행사 때마다 즉흥적으로 지출하기보다 매달 고정 비용과 필요한 상품을 미리 계획해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통·식품업계의 ‘구독 경제’가 소비자의 실속 지향적 니즈에 맞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 ◆ ‘실질 시장 규모 1위’ 쇼핑 멤버십

소비자들이 유료 구독 목록 중 가장 실질적인 가치를 느끼고 지갑을 여는 카테고리 ‘쇼핑 멤버십’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테크기업 오픈서베이의 ‘2026 구독 경제 트렌드’ 리포트(전국 만 20~59세 남녀 1500명 대상)에 따르면, 쇼핑 멤버십의 유료 구독률은 67.7%로 전년 대비 2.0%포인트(p)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쇼핑 멤버십의 진짜 위력은 ‘지출 규모’에서 드러났다. 쇼핑 멤버십의 월평균 지출 금액은 3만3400원으로 조사 대상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악·음원 관련 멤버십(1만2500원)과 비교하면 2.5배가 넘는 수치다. 결과적으로 유료 구독률에 월 지출 평균을 곱해 산출한 카테고리별 ‘유료 구독 매출 규모 지수’에서 쇼핑 멤버십은 타 카테고리를 제치고 실질적인 시장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쇼핑 멤버십을 유지하는 이유(중복 응답)는 철저히 실속 중심이다. ‘할인·포인트·무료배달 등 부가혜택이 유용해서’라는 답변이 62.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금전적 이득과 혜택이 구독 유지의 핵심 동인인 셈이다.

### ◆ 네이버·쿠팡 웃고, 신세계·컬리 울상

쇼핑 카테고리 내 브랜드 간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유지 의향에서 해지의 향을 뺀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1.0으로 가장 유의미한 강세를 보였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유지 이유로는 ‘유용한 부가 혜택(할인·포인트·무료배달)’, ‘저렴한 구독료/가성비’ 등이 꼽혔다.



유통·식품업계의 ‘구독 경제’가 소비자의 실속 지향적 니즈에 맞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첫GPT로 생성한 이미지

‘쿠팡 와우 멤버십’ 역시 +21.2를 기록하며 견고한 락인(Lock-in) 효과를 증명했다. 이용자들은 ‘유용한 부가 혜택’과 더불어 ‘대체 서비스 없음’을 주요 유지 이유로 선택했다.

반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2.8)’과 ‘컬리 멤버스(-3.1)’는 해지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 약세를 보였다. 주요 해지 원인으로 ‘이용 빈도 감소’와 함께 ‘대체 서비스의 존재’, ‘번들 및 결합 혜택의 감소’ 등이 지적됐다.

### ◆ 식품업계도 정기구독으로 확장

쇼핑 멤버십을 통해 ‘배송 편의성’과 ‘할인 혜택’의 맛을 본 소비자들의 지출 최적화 심리는 이제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 구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자사물 중심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세분화하며 장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공식품 ‘CJ더마켓’을 통해 가공식품 정기 배송 신청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주며, 연간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는 별도 할인까지 중복 적용해 자사물 충성 고객을 락인하고 있다.

롯데일푸드의 경우 ‘월간과자’, ‘월간생빵’ 등 매달 다른 구성의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배송하는 D2C 구조를 택했다.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그달 출시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큐레이션 요소를 강화했다.

hy는 자사물 ‘hy프레딧’을 중심으로 발효유부터 아나나 달걀, 두부, 샐러드 등 신선식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정기배송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부터는 3·6·12개월 단위로 유지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적립을 주는 ‘약정구독’을 새롭게 도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 병목 해결하고 ‘고객 맞춤 AI 메모리’ 집중

### >> 1면 ‘최태원, 젠슨 황...’서 계속

### 최 회장, 웨이저자 TSMC 회장과 차세대 AI 기술 트렌드 등 공유

###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경영진 만나 로봇·에너지 관리·배터리 등 논의



지난 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웨이저자 TSMC 회장이 만남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특히 글로벌 AI 밸류체인 내 공급 병목 현상 해결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업계 최고 수준의 AI 메모리 기술과 TSMC의 파운드리 역량의 결합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고객 맞춤형(Custom) AI 메모리’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성능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며 시장 리더십을 확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날 타이베이에서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과 경영진 등을 만나 차세대 AI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회담

은 최 회장이 글로벌 AI 생태계 핵심 기업과의 협력을 직접 챙기며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폭스콘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기업이자 빅테크 기업에 AI 서버를 공급하는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다. AI 서버 제조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이끄는 주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날 양사는 로봇과 에너지 관리, 배터리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SK그룹이 보유한 에너지 기술 분야의 탄

탄한 기반과 폭스콘의 글로벌 제조, 시스템 통합·AI 응용 분야의 강점을 결합해 향후 협력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 현장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두 차례 만남을 갖고 AI 메모리 동맹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남을 갖고 AI 메모리 시대를 만들어나갈 파트너십을 논의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총력

###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포럼 원유·건설장비 묶은 절충교역 제시

HD현대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그룹 차원의 산업협력 패키지를 앞세웠다.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에너지·건설기계 계열사까지 참

여시켜 원유 수입, 건설장비 협력, 첨단 분야 공동 연구개발 등을 묶은 절충교역안을 제시하며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HD현대는 지난 2일 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산업통상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공동 주최했다.

조석 HD현대 부회장은 이날 마티 다론 캐나다 상원 국가안보·국방·보훈 상임위원회(SECD) 위원장을 만나 K-잠수함의 경쟁력과 한국 조선 기술력을 설명하고 향후 한-캐나다 조선·방산 협력 확대에 HD현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회동 이벤트 넘어 실제 성과 연결 ‘관건’

### >> 1면 ‘엔비디아, 삼성·LG...’서 계속

엔비디아의 산업용 시뮬레이션 플랫폼 ‘옵티머스’로 스마트팩토리를 고도화해 온 데 이어 엔비디아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피지컬 AI 협력이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 LG CNS(로봇 자동화)와 ▲ LG AI연구원(피지컬 AI 연구) ▲ LG이노텍(비전센터) ▲ LG에너지솔루션(로봇용 배터리)이 역할을 나눠 그룹 로봇 생태계를 받친다.

협력의 구체적 형태는 이번 방한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황 CEO는 5일 오후 김 포공항으로 입국한 뒤 서울 성수동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해 간부회동에 참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정상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밖에도 황 CEO는 7일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 시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창립연도인 1993년을 탄 등번호 ‘93’번 두산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터를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게임·AI 협력을 논의하고, 8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 AI·로봇 스타트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두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추세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문서가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 회동 당시 주목받은 것도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고객이 자공급자,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